

FTA 활용현황분석: 한-중 FTA 발효 10주년의 성과와 시사점



제1장 한-중 FTA 개요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1절 머릿말

제2절 한-중 FTA 체결 및 발효 경과

제3절 한-중 FTA의 의의

제1장

한-중 FTA 개요

제1절 머릿말

- 본 보고서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된 통상환경 속에서 향후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 질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수출 구조와 기업의 FTA 활용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온 협정임
- 발효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확대 전략, 기술 자립 강화 등 구조 변화와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역시 빠르게 재편되면서 한-중 교역의 성격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남
-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중 FTA가 실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요구됨
- 특히 발효 10주년 시점은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성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교역 규모의 증감이 아닌, FTA 활용 기업 수, 활용률, 산업별 특성 등 구조적 관점에서의 성과 분석이 필요함
- 이를 통해 FTA 활용이 특정 산업 또는 기업 규모에 편중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FTA 발효 이후의 교역 구조 변화와 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FTA 성과와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먼저 한-중 FTA의 추진 배경과 체결·발효 경과, 제도적 의의를 정리하여 협정의 기본 구조와 정책적 위치를 설정함
 - 이어 한-중 상품무역 현황을 중심으로 교역 규모 및 산업별 수출입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발효 전후의 교역 양상을 비교·분석함
 - 또한 특혜품목 현황, 산업별 활용률, 대상금액 상위품목 등을 통해 한-중 FTA 활용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고효용 품목의 특성과 구조적 특징을 도출함
 - 아울러 FTA 발효 전후 수출입 기업 수 및 활용기업 수의 변화와 기업별 활용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실제 파급 효과를 기업 차원에서 검토함
 -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FTA 활용 효과와 애로사항, 향후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함
- 본 절은 이후 이어질 체결 경과 및 의의 분석에 앞서, 본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분석 방향을 제시하는 도입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이를 통해 독자가 한-중 FTA 10주년 성과 분석의 필요성과 본 보고서의 접근 방식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

제2절 한-중 FTA 체결 및 발효 경과

-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13번째 FTA로, 2012년 5월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타결, 이후 14차의 협상 끝에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었으며, 현재 까지 FTA 공동위원회와 서비스·투자 분야의 후속 협상이 지속적으로 개최됨
-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연구기관 간 민간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2005년부터 약 2년간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간 공동연구가 개시됨
 - 이후 2007년 다섯 차례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 개최, 2010년에는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 간 협의와 FTA 사전협의 회의가 열림
- 2012년 5월 한·중 통상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에 약 2년간 열네 차례에 걸친 공식협상 끝에 2014년 11월 최종타결하였으며, 2015년 11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됨
- 2017년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총 열두 차례의 후속 협상이 진행되었음

<표 1> 한-중 FTA 일지

일시	일정	비고
2018.01.05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	
2017.01.13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2015.12.20	발효	14차에 걸친 협상 개최 (2012.5~2014.11)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06.01	서명	
2014.11.10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베이징
2012.05.02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북경
2012.02.24	한중 FTA 공청회	
2006.11.17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최 합의	APEC
2004.09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ASEAN+3 경제장관회의, 2년 수행 후 2006.11월 연구종료

자료: FTA KOREA

제3절 한-중 FTA의 의의

- 한-중 FTA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하고, 통상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전략적 협정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짐
 - 관세 인하 및 단계적 철폐를 통해 대중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보함
 - 또한 양허 이행을 기반으로 교역 규범을 명확화함으로써, 통관·원산지 관리 등 무역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에 따라 한-중 교역 관계를 제도 기반의 지속적 협력 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한-중 FTA는 우리 산업의 수출 구조 변화와 FTA 활용 체계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일부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FTA 활용 구조가 형성되며, 특정 산업에서는 고효용 품목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와 FTA 활용 인식 제고를 통해 FTA 제도 활용의 내실화가 진행됨
 - 이는 단순 교역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아울러 한-중 FTA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통상정책의 전략적 선택지로서 기능함
 -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그로 인한 공급망 재편, 중국의 산업 고도화 등 대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교역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역내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한-중 간 경제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기제로 작용함에 따라 향후 통상 리스크 관리 및 수출 구조 재편 과정에서도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한-중 FTA는 성과 이면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음

- 일부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FTA 활용 편중 현상이 나타나며, 활용 격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 내 산업 정책 변화와 기술 자립 기조 강화는 한-중 FTA 활용 환경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한-중 FTA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지원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상품무역 현황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한-중 FTA 발효 전후 현황 비교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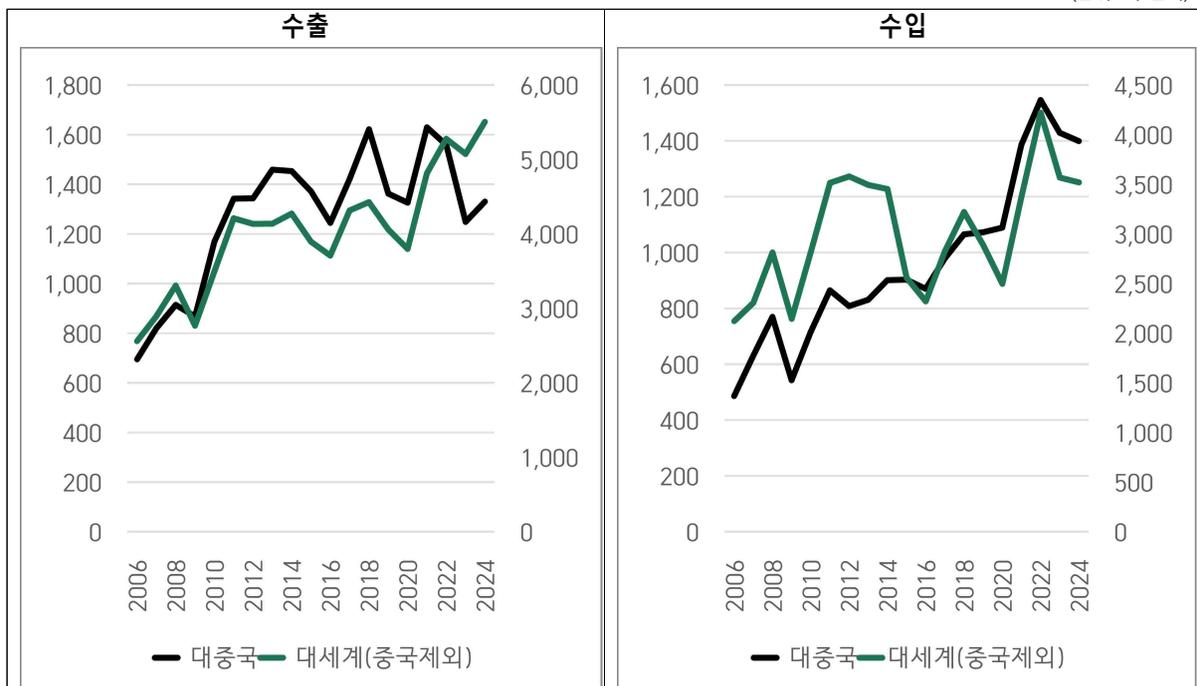
한국과 중국의 상품무역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대세계 교역 흐름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수출과 수입에서 상이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대세계 수출은 2021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반면 대중국 수출은 같은 시기 감소세를 보이며 대중국 수출 비중이 축소되는 흐름이 관찰됨
- 반면 수입은 대세계와 대중국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나 대중국 수입 증가폭이 더 크게 확대되며 수입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표 2> 한국의 대중국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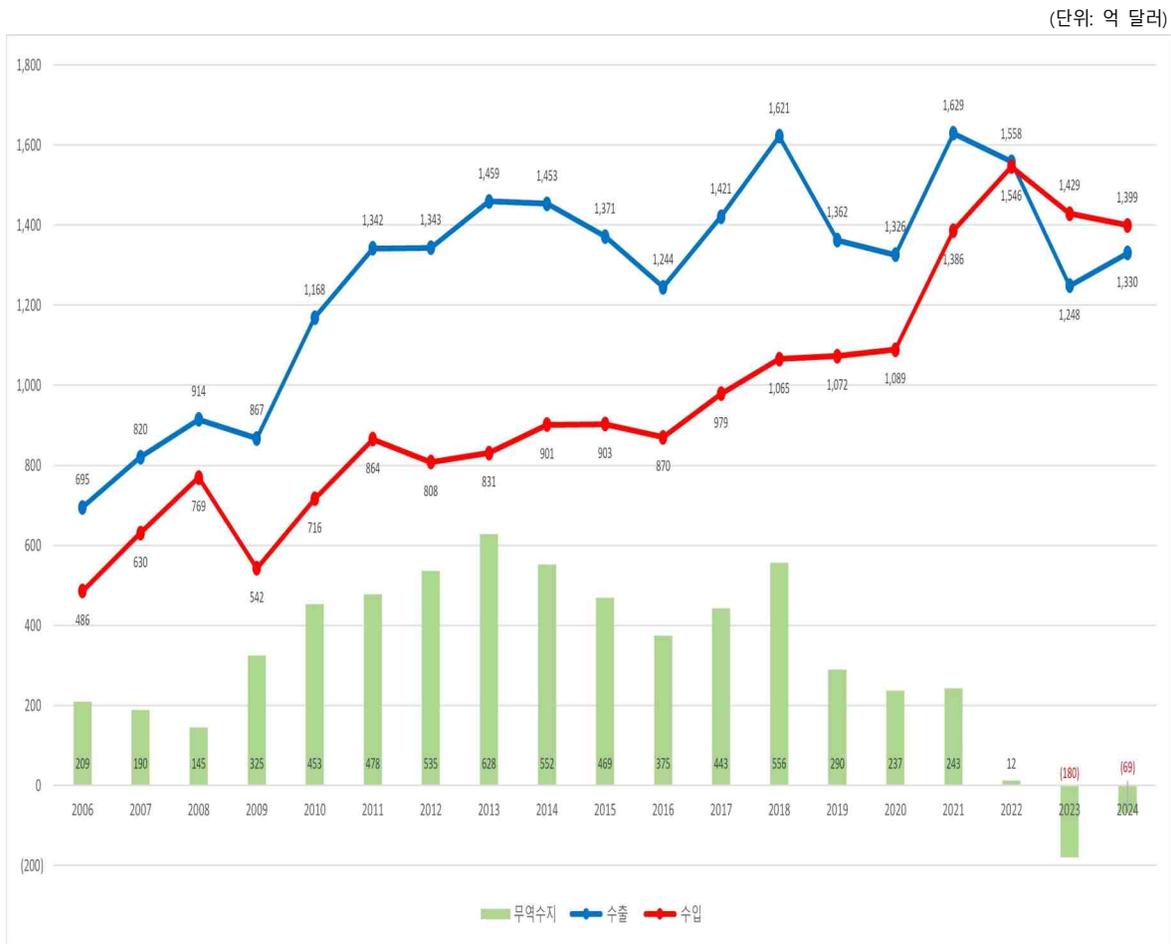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무역수지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입 증가 속도가 수출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가 2022년 이후 빠르게 악화되는 흐름이 확인됨
- 대중국 수출은 202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1,248억 달러까지 감소, 대세계 수출 증가 흐름과 상반된 움직임을 보임.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 전자·디스플레이·철강 등 주요 품목의 수요 감소, 중국 내 국산화 확대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대중국 수입은 2020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으며 2023년 하락 국면에서도 수출과 달리 감소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남. 이는 중국이 여전히 한국 제조업의 핵심 중간재 공급처로 기능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에도 가격과 조달 용이성 측면에서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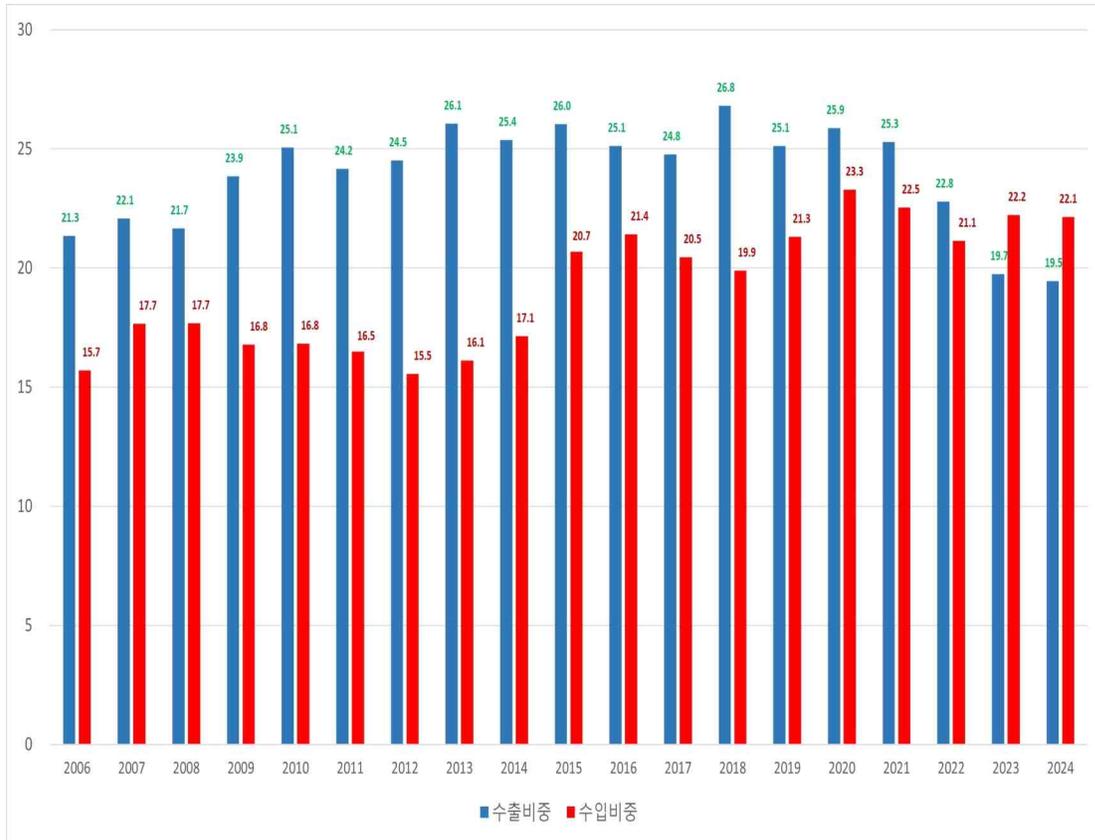
<표 3>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표 4> 한국의 대중국 무역 비중

(단위: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제2절 한-중 FTA 발효 전후 현황 비교

- 본 절에서는 발효 이전(2006년~2015년) 연평균과 발효 이후(2016년~2024) 연평균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양국 간 교역 구조 변화를 비교함

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 현황 비교

- FTA 발효 이후 대중국 수출 규모 자체는 증가했으나, 대세계 수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중국의 수출 비중은 소폭 낮아졌으며 중국이 여전히 최대 교역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시장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실제로 중국은 2020년대 내내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추세임(대중국 수출 비중 2020년: 25.9%, 2021년: 25.3%, 2022년: 22.8%, 2023년: 19.7%, 2024년: 19.5%)
 - FTA 발효 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1,143억 달러였으며,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은 3,568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 비중은 약 24.3%였음
 - FTA 발효 후에는 대중국 수출이 1,418억 달러로 약 24.1% 증가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은 4,551억 달러로 약 27.6% 늘어나며,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 0.5%p 하락함
- 수출과 달리 수입에서는 대중국 의존도가 뚜렷하게 강화되었으며, 특히 한국 제조업의 중간재·부품·소재 조달에서 중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입 공급국이자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 잡음
 - FTA 발효 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연평균 744억 달러였고,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입은 4,371억 달러로 대중국 수입 비중은 약 14.6%였음
 - FTA 발효 후에는 대중국 수입이 1,204억 달러로 약 61.6% 급증하였고,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입도 5,569억 달러로 약 27.4%가 증가하며 전체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17.8%로 약 3.2%p 확대됨

<표 5>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수출금액			수입금액		
	대중국	대세계(중국 제외)	중국의 비중	대중국	대세계(중국 제외)	중국의 비중
FTA 발효전 (2006-2015 연평균)	114,316	356,785	24.3%	74,494	437,140	14.6%
FTA 발효후 (2016-2024 연평균)	141,811	455,137	23.8%	120,376	556,850	17.8%
증감률	24.1%	27.6%	-0.5%p	61.6%	27.4%	3.2%p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나. 중국의 대한국 교역 현황 비교

-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FTA 발효 전후 모두 약 4% 중반 수준의 안정적인 수출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음. 즉, 중국의 글로벌 수출 확대로 절대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한국의 상대적 비중은 다른 주요 시장(미·EU 등)과 비슷한 속도로 확대되어 구조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FTA 발효 전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연평균 760억 달러였고, 한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은 1조 6,420억 달러로, 대한국 수출 비중은 4.4%였음
- FTA 발효 후에는 대한국 수출이 1,271억 달러로 약 67.2%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한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출도 2조 7,586억 달러로 약 68.0%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4%로 변동이 없었음
-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발효 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중국의 전 세계 수입 확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해 한국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와 내수·첨단 산업 육성 정책 등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FTA 발효 전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연평균 1,418억 달러였으며 한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입은 1조 2,924억 달러로, 대한국 수입 비중은 약 9.9%였음

- FTA 발효 후 대한민국 수입은 1,828억 달러로 약 28.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을 제외한 대세계 수입은 2조 509억 달러로 약 58.7% 증가하며, 그 결과 중국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발효 전 대비 약 1.7%p 하락함

<표 6>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수출금액			수입금액		
	대한국	대세계(한국 제외)	한국의 비중	대한국	대세계(한국 제외)	한국의 비중
FTA 발효전 (2006-2015 연평균)	76,009	1,642,060	4.4	141,836	1,292,410	9.9%
FTA 발효후 (2016-2024 연평균)	127,053	2,758,556	4.4	182,834	2,050,908	8.2%
증감률	67.2%	68.0%	-	28.9%	58.7%	-1.7%p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다.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출입 현황 비교

-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산업별로 상이한 변화 패턴을 보였으며, 일부 산업은 대중국 수출이 크게 확대된 반면 일부 산업은 감소하며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임
 -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등 한국이 기술·품질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중간재 생산-공급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특히 중국 내 제조업 업그레이드, 친환경·고부가가치 소비재의 성장에 편승하여 한국산 고기능 부품·소재의 수요가 상승하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섬유류·광산물처럼 한국이 한때 강세를 보였던 품목에서는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경향이 확인되며 이는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기지의 해외 이전, 또는 원가경쟁력 저하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이나 비관세장벽 증가 등이 한국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보임

- 따라서 한국 기업은 향후 대중국 수출에서 단순 제품 중심에서 탈피해 ‘기능, 품질, 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하여 중국의 제조업 기업과 협업 방식으로서의 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7>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출 현황

산업군	주요 산업군 (2016-2024 수출금액 연평균 상위 산업군)	수출금액 평균 (단위: 백만불)		증감률 (단위: %)	
		2006-2015 연평균	2016-2024 연평균	대중국	대세계 (중국 제외)
농림수산물	전체	822	1,640	99.4	59.1
	농산물	477	872	82.8	69.0
	수산물	260	558	114.6	36.2
광산물	전체	7,412	6,828	-7.9	16.2
	광물성연료	7,143	5,791	-18.9	17.6
	금속광물	186	896	381.3	1.2
화학공업제품	전체	21,385	30,198	41.2	70.6
	석유화학제품	17,729	18,959	6.9	36.3
	정밀화학제품	2,621	9,207	251.3	200.2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전체	2,287	3,074	34.4	34.3
	플라스틱제품	1,789	2,715	51.8	75.3
	고무제품	177	277	56.3	2.1
섬유류	전체	2,680	1,709	-36.2	-8.2
	직물	1,693	716	-57.7	-17.5
	섬유제품	491	614	25.3	11.3
생활용품	전체	1,190	1,409	18.4	46.2
	생활용품	948	1,249	31.7	55.4
	기타 생활용품	242	160	-34.1	-7.7
철강금속제품	전체	7,340	8,061	9.8	21.8
	철강제품	4,328	4,215	-2.6	13.3
	비철금속제품	2,785	3,655	31.2	49.1
기계류	전체	17,997	18,561	3.1	13.6
	정밀기계	1,416	5,146	263.5	150.4
	기초산업기계	4,384	4,380	-0.1	39.3
전자전기제품	전체	53,116	70,214	32.2	37.4
	전자부품	37,507	55,480	47.9	92.4
	산업용전자제품	11,256	11,823	5.0	-16.4
잡제품	전체	64	118	84.8	106.2
	인쇄물	7	44	557.1	16.6
	의료위생용품	11	32	191.9	167.1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화학공업제품·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기계류·전자전기제품 등에서 중국을 제외한 대세계로부터의 수입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임. 이는 우리의 수입 구조가 중간재와 공급망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중간재 비중은 발효 전(2015년 기준) 62.0%에서 상승하여 2022년 67.5%까지 상승하였다 소폭 하락하여 2024년 약 64.6% 수준을 기록함(최근 3년간 대중국 중간재 수입 비중 2022년: 67.5%, 2023년: 67.4%, 2024년: 64.6%)
-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등은 모두 대중국 수입이 80%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대세계 수입 증가율은 최대 40%대에 그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광산물의 대중국 수입은 FTA 전후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대세계 수입은 증가해 자원·에너지 조달선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핵심광물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호주·중남미 등 자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섬유류의 경우 대중국 수입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대세계 수입은 급증해 한국 의류·섬유 공급망이 동남아 등 다른 저임금 생산기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중 간 경공업 분야에서의 직접 경쟁 심화와 생산기지 이전흐름을 보여줌
-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핵심 중간재와 소재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한국 제조업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산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이 가장 뚜렷한 특징임
- 이러한 변화는 제조업 원가절감과 조달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반면에 기초화학소재, 전자부품, 배터리 관련 핵심소재 등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지속 상승하면서 공급망 취약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대중국 수입 구조는 단순한 무역 확대를 넘어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우회 공급망 구축, 국내 생산 역량 강화와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8> 한-중 FTA 발효 전후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입 현황

산업군	주요 산업군 (2016-2024 수입금액 연평균 상위 산업군)	수입금액 평균 (단위: 백만불)		증감률 (단위: %)	
		2006-2015 연평균	2016-2024 연평균	대중국	대세계 (중국 제외)
농림수산물	전체	4,073	4,877	19.7	57.1
	농산물	2,329	2,933	25.9	43.0
	수산물	1,046	1,295	23.9	79.8
광산물	전체	3,037	2,037	-32.9	5.9
	비금속광물	1,019	1,083	6.3	18.1
	광물성연료	1,815	706	-61.1	3.1
화학공업제품	전체	7,236	16,991	134.8	16.4
	정밀화학제품	3,373	10,267	204.4	58.9
	석유화학제품	1,398	2,786	99.3	-16.4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전체	1,096	2,189	99.8	-2.3
	플라스틱제품	692	1,628	135.2	-2.2
	고무제품	292	463	58.4	58.8
섬유류	전체	5,564	6,933	24.6	97.3
	섬유제품	3,711	4,917	32.5	175.5
	직물	1,013	1,196	18.2	17.8
생활용품	전체	4,345	7,877	81.3	105.3
	생활용품	3,204	6,261	95.4	89.2
	기타 생활용품	1,141	1,617	41.7	191.6
철강금속제품	전체	12,604	12,525	-0.6	-14.0
	철강제품	10,458	9,356	-10.5	-33.5
	비철금속제품	1,940	2,667	37.4	12.3
기계류	전체	6,664	12,403	86.1	33.9
	수송기계	2,194	3,836	74.9	49.6
	기초산업기계	1,931	3,126	61.9	-4.9
전자전기제품	전체	29,709	54,230	82.5	41.9
	전자부품	12,595	27,211	116.0	35.9
	산업용전자제품	10,535	16,781	59.3	55.8
잡제품	전체	118	312	165.3	11.2
	의료위생용품	30	118	298.5	42.6
	기타잡제품	21	82	296.7	-45.8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 한-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 구조는 수출과 수입 모두 중간재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
 -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이 기술·품질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중간재·전자부품·화학소재 등을 중국 제조업에 공급하는 흐름이 강화되었고,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기초소재·범용 부품 등이 크게 증가하며 중국을 주요 조달처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이는 양국 간 가치사슬이 상호보완적 구조이며 국내 제조업 산업이 중국의 생산능력과 소비시장에 의존하는 교역 패턴을 보여줌
- 따라서 향후 우리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대중국 교역 구조에 대한 전략적 균형 관리가 필요함

제3장 한-중 FTA 활용 현황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1절 한-중 FTA 특혜품목 현황

제2절 산업별 한-중 FTA 활용률 현황

제3절 산업별 한-중 FTA 대상금액 상위품목 현황

제4절 산업별 한-중 FTA 고효율품목

제3장

한-중 FTA 활용 현황

제1절 한-중 FTA 특혜품목 현황

- 한-중 FTA는 협상 단계에서 설정된 자유화 목표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양국은 협정 발효 이후 최대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한국은 전체 품목의 약 92%, 중국은 약 91%가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됨
- 한국은 전체 12,323개 품목 중 6,108개를 즉시 철폐하여 개방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이 중 공산품 중심 품목의 즉시 철폐 비중이 특히 높아, 제조업 분야의 관세 절감 효과가 빠르게 발생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농산물과 어업 등 민감 품목은 장기 철폐 또는 제외로 설정하여 산업 보호 장치도 병행함
- 중국은 전체 8,194개 품목 중 1,649개만 즉시 철폐하여 한국보다 개방 폭이 작으며, 특히 공산품 일부는 즉시 개방했지만, 농축산물과 화학제품, 기계류 등에서 단계적 개방을 선택하여 장기 철폐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임
- 한-중 FTA 상품 양허는 농수축산물과 일부 영세 중소기업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철폐 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내 취약 산업의 조정 부담을 최소화한 반면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군은 조기에 개방하여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넓혔음
- 특히 발효 당시 유관세 품목 중 상당수는 즉시 또는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도록 설계되어 국내 산업 보호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면서, 양허의 균형성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됨

<표 9> 한-중 FTA 상품 양허 결과

(단위: 개, %)

양허유형	한국		중국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즉시철폐	6,108	49.9	1,649	20.1
(무관세)	(1,983)	(16.2)	(691)	(8.4)
(유관세)	(4,125)	(33.7)	(958)	(11.7)
5년 철폐	1,433	11.7	1,679	20.5
10년 철폐	2,149	17.6	2,518	30.7
15년 철폐	1,106	9.0	1,108	13.5
20년 철폐	476	3.9	474	5.8
부분감축	87	0.7	129	1.6
TRQ	21	0.2	-	-
협정배제	16	0.1	-	-
양허제외	836	6.8	637	7.8
총 합계	12,232	100	8,194	100

* 품목수와 비중 산정은 모두 양허표(HS 2012) 기준이며 한국은 10단위, 중국은 8단위 사용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제2절 산업별 한-중 FTA 활용률 현황

- 한-중 FTA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서 FTA 활용률은 전 산업에서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16년 33.9%에서 2024년 83.1%까지 크게 확대돼 산업별 편차가 존재함에도 전반적 상승세가 뚜렷해, 대중국 교역 구조 변화 속에서 FTA가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시장 접근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제품 같이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활용률이 80~90%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핵심 중간재·부품 중심 산업에서 FTA 활용이 이미 정착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 기계류와 철강금속제품 등 제조업 기반 산업도 활용률이 2016년 대비 30%p 이상 증가하여 비용 절감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계류는 2016년 27.9%에서 2024년 73.0%로 상승해 제조업 공급망 핵심 산업에서 FTA 활용 기반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섬유류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원산지 관리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률 상승 속도가 타 산업군과 비교하여 비교적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에는 각각 51.2%로 상승하며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 산업에서 수출 활용률이 상승했다는 점은, 한-중 FTA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기업의 실제 수출 활동에 밀접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산업별 활용 난이도 및 기업 규모의 차이로 인해 활용률 수준은 여전히 상이하기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의 FTA 활용 지원 정책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표 10> 산업별 한-중 FTA 수출 활용률

(단위: %)

산업	한-중 FTA 활용률									전협정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수산물	34.6	51.6	73.8	76.4	51.6	62.8	59.5	87.9	92.4	84.1
광산물	53.2	59.7	90.7	92.5	93.6	93.2	95.0	81.7	91.7	86.8
화학공업제품	49.1	58.2	60.1	62.4	69.5	72.5	75.7	86.5	91.1	88.6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26.2	53.1	57.7	58.1	62.8	64.1	62.1	73.5	73.0	80.5
섬유류	21.6	37.3	43.3	45.8	58.7	58.5	46.1	47.2	51.2	58.1
생활용품	17.4	40.0	43.3	44.5	50.0	51.8	38.0	47.3	55.6	69.2
철강금속제품	31.4	46.3	51.8	58.3	59.2	48.4	50.0	69.3	70.0	83.0
기계류	27.9	46.3	53.1	42.2	54.4	53.2	53.4	71.6	73.0	90.2
전자전기제품	15.0	42.9	37.9	59.3	54.7	46.7	26.6	48.3	88.6	84.0
잡제품	9.0	17.7	19.3	27.1	17.0	9.2	10.7	63.8	75.3	92.7
합계	33.9	49.7	55.0	57.2	65.0	64.7	63.3	73.3	83.1	86.3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 산업별 FTA 특혜대상 수출금액 비중의 변화는 한-중 FTA의 단계적 철폐 구조, 중국의 산업별 개방 속도, 그리고 양국의 산업 경쟁력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화학공업제품은 특혜대상 비중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산업으로, 이는 중국이 이온교환수지와 폴리우레탄 등 첨단 고부가가치 화학제품과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기초원료에 대해 비교적 넓은 폭의 시장 개방을 적용한 결과로 판단됨
- 이러한 개방 구조는 한국의 강점인 정밀화학과 기능성 소재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유발하여 관세 인하 효과가 가격 경쟁력 강화로 전환돼 특혜 대상 비중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표 11> 이온교환수지와 폴리우레탄의 중국측 현행 세율 및 한국의 대중 수출금액

(단위: 천불, %)

품목정보		중국측 관세 양허표		현재 중국의 수입세율(2015년)		수출금액		
HS	품목명	기준 세율	양허 유형	MFN	한-중 FTA 협정 세율	2015년	2024년	증감률
391400	이온교환수지	6.5	5	6.5	0	15,838	27,684	74.8%
390950	폴리우레탄	6.5	0	6.5	0	68,239	83,607	22.5%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중 FTA 양허표를 활용하여 저자 가공

- 농림수산물 역시 중국이 농산물 전체 품목의 약 91%에 대해 관세 철폐를 약속함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확보된 분야이며, 수산물 역시 중국이 품목수 기준 99%를 완전 개방하며 FTA 활용 실익이 높아 특혜 대상 수출금액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중국은 자국내 산업육성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을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장기 철폐 대상으로 설정하였기에 국내산 철강제품의 관세혜택 실익이 상대적으로 낮아 특혜 대상 수출금액의 비중 확대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표 12> 한-중 FTA 산업별 특혜 대상 수출 금액 비중

(단위: %, %p)

MTI 1단위	2016 산업별 비중	2024 산업별 비중	비중 변화
농림수산물	1.1	1.8	0.7
광산물	4.6	3.1	-1.5
화학공업제품	32.5	44.4	11.9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4.9	6.3	1.4
섬유류	4.3	3.0	-1.3
생활용품	0.5	1.9	1.4
철강금속제품	11.0	10.9	-0.1
기계류	24.8	12.7	-12.1
전자전기제품	16.2	15.8	-0.4
잡제품	0.2	0.1	-0.1
총합계	100	100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 한-중 FTA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입에서 FTA 활용률은 전 산업에서 뚜렷하게 상승하였으며, 2016년 58.1%에서 2024년 92.0%로 크게 확대됨. 특히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등 주요 중간재·핵심 소재 산업에서 90%를 상회하는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며, 대중국 수입 구조에서 FTA가 실질적 조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화학공업제품·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산업군의 수입 활용률이 약 95% 수준까지 확대, FTA 활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화학공업제품은 2024년 96.1%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나타내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대중국 수입에서 FTA 활용률이 80-90% 수준을 기록한다는 것은 원재료와 부품 조달 과정에서 관세 절감이 가능한 품목 대부분에 FTA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13> 산업별 한-중 FTA 수입 활용률

(단위: %)

산업	한-중 FTA 활용률									전업정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수산물	54.4	68.5	74.3	77.4	78.8	81.1	80.7	84.0	84.7	93.2
광산물	40.8	53.1	57.0	54.6	68.1	62.1	87.5	69.5	83.8	83.4
화학공업제품	73.8	82.9	86.7	89.0	93.2	94.8	95.2	96.0	96.1	85.9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59.9	73.0	78.1	81.9	87.8	89.9	91.3	93.1	94.5	84.2
섬유류	60.0	71.6	75.8	80.5	85.2	86.2	84.9	87.5	89.5	86.3
생활용품	51.9	63.3	69.2	75.6	79.8	82.1	82.2	85.2	87.9	78.3
철강금속제품	64.1	69.0	72.9	78.6	89.7	91.9	91.8	91.2	93.3	86.2
기계류	49.9	60.6	68.9	76.6	85.2	85.5	86.4	88.3	90.1	83.9
전자전기제품	50.2	60.6	70.2	78.5	80.6	82.5	86.0	91.6	93.4	84.0
잡제품	40.8	62.6	64.0	75.8	86.5	95.2	94.7	88.8	86.7	78.5
합계	58.1	68.6	74.9	80.1	85.1	87.0	88.5	90.7	92.0	85.4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 산업별 특혜대상 수입금액 비중은 한국이 중국산 어떤 품목을 관세혜택 받으며 수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한국의 양허구조가 실제 조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줌
- 특히 양허 수준이 높은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관세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었음에 따라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우리 기업의 수요와 일치, 특혜 대상 수입금액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우리나라가 국내 민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방을 제한한 농림수산물의 경우 관세 실익이 다른 산업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기에 특혜 대상 수입금액 역시 축소된 것으로 보임

- 즉 한-중 FTA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는 관세 혜택이 있는 특혜 대상 품목의 비중이 중간재와 부품, 생활용품 중심으로 확대되고, 민감산업은 보호 구조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됨

<표 14> 한-중 FTA 산업별 특혜 대상 수입 금액 비중

(단위: %, %p)

구분 (MTI 1단위)	2016 산업별 비중	2024 산업별 비중	비중 변화
농림수산물	7.5	5.2	-2.3
광산물	2.0	1.2	-0.8
화학공업제품	22.4	23.7	1.3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4.1	3.7	-0.4
섬유류	10.6	8.8	-1.8
생활용품	5.7	10.1	4.4
철강금속제품	7.4	7.8	0.4
기계류	15.2	18.3	3.1
전자전기제품	24.4	21.1	-3.3
잡제품	0.7	0.1	-0.6
총합계	100	100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관세청, FTA 활용지도

제3절 산업별 한-중 FTA 대상금액 상위품목 현황

- 한-중 FTA 특혜대상 수출금액 상위 품목을 보면,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 제품처럼 우리나라가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고활용을 보이며, 중국의 양허 수준이 높은 농림수산물 산업에서도 높은 활용률을 기록함
- 특히 합성수지, 기초유분, 정밀화학원료 등 대상 수출금액이 큰 품목 모두 높은 활용 수준을 보이며, 화학공업 산업 내 FTA 핵심 수혜 품목으로 나타남
 - 한국은 나프타 분해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의 범용 수지부터 정밀화학 및 기능성 수지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며, 이런 제품들은 중국의 포장재를 비롯한 자동차, 전자산업 등에 중간재로 공급돼 양국 간 가치사슬의 핵심 연결고리로 평가됨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에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생산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활용해 조립 및 가공을 거쳐 최종재를 생산하는 가치사슬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바, 2024년 기준 해당 품목은 높은 특혜 대상 수출금액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FTA 활용률을 보이고 있음
- 농산가공품과 수산가공품 역시 95%를 상회하는 수출활용률을 보이며 한-중 FTA를 통해 수출 확대를 유도하고자 했던 정책 방향이 잘 반영된 결과를 보여줌
- 한-중 FTA 특혜대상 수입금액 상위 품목은 정밀화학원료와 의류, 생활용품 등으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원재료와 소비재를 FTA 혜택 하에 대량 조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기타 화학제품은 수입 특혜대상 금액이 크고, 활용률도 94~98% 수준으로 매우 높는데, 이는 중국이 기초화학제품에서 대규모 설비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 국내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FTA의 관세 혜택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생활용품과 섬유류 역시 높은 FTA 활용률을 보이며, 이는 중국이 경공업·생활용품 분야에서 여전히 강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함. 이러한 경쟁력에 기반하여 국내에서는 유통·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국산 완제품과 부품을 수입해 재판매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5> 한-중 FTA 산업별 특혜 대상 수출입 금액 상위 3대 품목 및 활용률(2024년 기준)

(단위 : 천불, %)

구분 (MTI 1단위)	수출			수입		
	MTI 3단위	대상금액	활용률	MTI 3	대상금액	활용률
농림수산물	농산가공품	304,523	95.8	농산가공품	549,408	66.8
	어류	96,624	89.0	연체동물	455,807	97.5
	수산가공품	92,642	98.6	곡실류	400,441	77.2
광산물	석유제품	1,145,608	95.4	기타 비금속광물	381,021	94.6
	기타 비금속광물	141,691	61.3	석유제품	162,988	51.8
	LPG	12,474	100.0	석탄	64,091	100.0
화학공업제품	합성수지	5,822,066	96.5	정밀화학원료	7,675,983	97.8
	기초유분	4,948,245	99.7	합성수지	1,942,458	94.8
	정밀화학원료	3,076,405	89.4	기타 화학공업제품	1,417,858	96.0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플라스틱제품	2,383,909	72.7	플라스틱제품	1,727,270	94.1
	고무제품	210,815	76.4	고무제품	591,364	95.4
	가죽	31,912	72.4	가죽제품	67,859	98.7
섬유류	의류	421,097	21.7	의류	3,325,639	85.0
	기타직물	207,824	63.7	기타섬유제품	1,204,868	95.2
	인조장섬유직물	133,344	48.8	기타직물	438,133	95.7
생활용품	문구 및 완구	370,899	53.0	신변잡화	2,275,718	84.4

(단위 : 천불, %)

구분 (MTI 1단위)	수출			수입		
	MTI 3단위	대상금액	활용률	MTI 3	대상금액	활용률
	신변잡화	316,933	57.5	문구 및 완구	1,433,851	85.7
	패션잡화	64,137	48.2	주방용품	915,564	97.1
철강금속제품	동제품	1,187,117	61.1	알루미늄	1,380,892	92.7
	철강판	990,666	77.2	주단조품	1,087,914	90.8
	알루미늄	939,082	94.5	동제품	649,135	96.4
기계류	기계요소	1,001,012	83.2	자동차부품	2,880,233	89.5
	원동기 및 펌프	851,968	72.2	원동기 및 펌프	1,864,241	91.4
	자동차부품	847,645	82.6	기계요소	1,668,741	86.8
전자전기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500,684	91.1	건전지 및 축전지	4,238,385	98.3
	전력용기기	680,193	93.0	산업용 전기기기	2,672,644	90.8
	산업용 전기기기	573,806	82.6	가정용회전 (rotary electric) 기기	1,037,318	98.7
잡제품	의료위생용품	31,809	76.3	기타 잡제품	35,373	93.2
	보석	6,163	95.3	보석	15,510	67.0
	그림	1,852	0.9	의료위생용품	10,831	82.8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통계서

제4절 산업별 한-중 FTA 고효율품목

- 2024년 한-중 FTA 수출 고효율 품목을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효율 품목은 활용률이 90~100% 수준으로 매우 높은 반면,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산업군은 고효율 상위 3개 품목 모두가 70%대의 낮은 활용률을 기록하며 다른 산업군과 뚜렷한 대비를 보임
 - 해당 산업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기록하는 것은 ① 여러 원재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관리가 어렵고, ②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군이며, ③ 수출품목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관세혜택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 (원산지 관리 난이도)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은 복잡한 가공 공정과 여러 원재료의 혼합, 첨가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원산지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높은 중소기업 비중) 또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기업 위주의 산업군과는 다르게 원산지 관리 인력과 시스템 등의 비용 부담이 큼
 - * 고무제품(MTI 3단위) FTA 수출 활용률: 대기업(85.4%), 중소기업(75.1%)
 -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혜택 규모) 생활용품용 플라스틱과 고무제품은 단가가 높지 않고 중국의 MFN 역시 10% 미만 수준으로 FTA 활용에 따른 편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즉 FTA 활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높은 산업군이기 FTA 수출 활용률 제고 정책의 우선 대상 산업으로 판단됨
- 2024년 기준 한-중 FTA 수입 고효율 품목을 검토한 결과, 산업 전반에서 활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실상 낮은 활용률을 보이는 품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원자재·중간재·완제품의 상당수가 협정 관세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어, FTA 활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구조임을 시사함
 -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 수입 부문의 활용률 개선보다는 공급망 안정성 관리가 핵심으로 보이며, 향후 정책의 방향은 핵심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망 리스크 대비 재고 전략 등의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표 16> 한-중 FTA 산업별 FTA 고활용품목(2024년 기준)

(단위 : 천불, %)

구분 (MTI 1단위)	수출			수입		
	MTI 3단위	대상금액	활용률	MTI 3	대상금액	활용률
농림수산물	갑각류	14,672	100.0	종자류	354	100.0
	어육 및 어란	2,095	100.0	갑각류	151,433	99.9
	기타 수산물	787	100.0	모류	8,694	99.9
광산물	LPG	12,474	100.0	석탄	64,091	100.0
	석회석	8	100.0	알루미늄광	736	100.0
	금은및백금	2,064	98.8	동광	21	100.0
화학공업제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130,932	100.0	시멘트	7,096	100.0
	시멘트	4,697	100.0	인산비료	702	100.0
	복합비료	547	100.0	제지원료	71	100.0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고무제품	210,815	76.4	가죽제품	67,859	98.7
	모피	143	76.2	모피	5,102	96.0
	플라스틱 제품	2,383,909	72.7	고무제품	591,364	95.4
섬유류	재생섬유	7,047	99.6	재생섬유	4,037	99.8
	인조섬유	81,214	98.1	견직물	16,459	99.6
	인조섬유 장섬유사	71,781	91.0	인조섬유 방적사	67,734	98.6
생활용품	유아용품	3,677	97.7	주방용품	915,564	97.1
	가구	890	95.6	유아용품	42,502	96.9
	주방용품	17,935	75.5	가구	518,636	94.3
철강금속제품	아연제품	108,257	97.4	철강관 및 철강선	49,797	100.0
	알루미늄	939,082	94.5	철강판	23,540	100.0
	강판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4,908	93.6	컨테이너	9,281	100.0
기계류	식품가공 포장기계	29,579	93.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1,281	100.0
	건설광산기계	109,402	91.7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654	100.0
	의료용기기	394,391	91.2	자동차	413,299	98.6
전자전기제품	냉장고	45,797	95.7	냉장고	425,487	99.5
	기구부품	215	95.5	영상기기	237,337	99.4
	전력용기기	680,193	93.0	컴퓨터	43,231	99.1
잡제품	기타 잡제품	1,283	100.0	기타 인쇄물	2,293	100.0
	보석	6,163	95.3	서적	1,059	100.0
	의료위생용품	31,809	76.3	조각품	169	100.0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통계서



제4장 FTA 활용기업 실태조사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 제1절 FTA 활용기업 실태조사 개요
- 제2절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효과
- 제3절 FTA 활용기업의 애로사항
- 제4절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 지원

제4장

FTA 활용기업 실태조사

제1절 FTA 활용기업 실태조사 개요

-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유무역의 기반을 위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함. 본 장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함
-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한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그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FTA 특혜대상 수출액은 2,2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지만, FTA 활용률은 86.8%로 0.8%p 상승하여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FTA는 고관세 부과와 예측 불가능한 통상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해외 시장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표 34> 2025년 1월~9월 FTA 특혜대상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 현황

(단위 : %, 천불)

구분	2025년 3월기준		2025년 6월기준		2025년 9월기준	
	FTA 특혜대상	FTA 활용률	FTA 특혜대상	FTA 활용률	FTA 특혜대상	FTA 활용률
2024년	56,289,349	85.1	115,236,381	85.7	169,579,838	86.0
2025년	53,045,553	87.4	112,499,497	87.0	169,354,043	86.8
증감률	-5.8	+2.3	-2.4	+1.3	-0.13	+0.8

자료: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BRIEF

- 본 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활용 실태와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조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활용 현황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기획됨
 - 조사 기간: 2025년 6월 16일 ~ 6월 30일
 - 조사모집단: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2024년 수출기업
 - * 제외 사항: 비영리 기업, FTA 비대상품목 수출기업, FTA 미활용기업, FTA 활용 대표 품목의 대상금액 십만불 이하 기업
 - 전체 응답기업 수: 총 605개 수출기업
-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0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응답 기업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중소기업이 539개사(8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견기업은 59개사(9.8%), 대기업은 7개사(1.2%)로 나타남
- 이번 조사에 응답한 수출기업 605개사를 산업군별(MTI 1단위 기준)로 분류한 결과, 화학공업제품(21.6%)과 기계류(20.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섬유류(12.2%), 철강금속제품(11.9%),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0.9%)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물(6.8%), 전자전기제품(6.1%), 생활용품(6.9%), 잡제품(2.1%)이 뒤를 이었음
- 또한, 조사 응답 기업의 산업군별 분포는 2024년 기준 전체 수출기업의 산업군별 분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띄며 이는 본 설문조사의 응답이 실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산업별 구조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35> 산업별 수출기업 응답 비중 현황

(단위: %, %p)

구분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설문응답 비중	6.8	21.6	10.9	6.9	12.2
'24년 수출기업수 비중	8.5	9.4	13.6	8.5	12.5
구분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잡제품	전체
설문응답 비중	11.9	20.8	6.1	2.1	100
'24년 수출기업수 비중	14.3	23.3	9.6	0.3	100

자료: 관세청, 「기업무역 활동 통계」

제2절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효과

- 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얻는 가장 큰 효과로는 관세 절감(50.1%)을 꼽았으며, 이어 수입자 요청(바이어 요구 충족)(41.2%),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27.1%), 가격 경쟁력 향상(22.8%) 순으로 조사됨

<표 36>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효과' 조사 결과

Q. FTA 활용을 통해 체감한 주요 효과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p)

구분	관세 절감	수입자 요청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	가격 경쟁력 향상	신규시장 개척
수출기업 전체	50.1	41.2	27.1	22.8	5.3

- 산업별로 살펴보면,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57.5%), 화학공업제품(56.1%)과 철강금속제품(50.0%)은 [관세 절감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생활용품(58.3%)과 섬유류(52.9%), 농림수산물(52.2%) 기업들은 [수입자 요청]의 응답 비중이 더 높음

<표 37> FTA 활용기업의 산업별 'FTA 활용 효과' 조사 결과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구분	관세 절감	수입자 요청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	가격 경쟁력 향상	신규 시장 개척	효과 미비
농림수산물	39.1	52.2	23.9	30.4	10.9	6.5
화학공업제품	56.1	36.8	23.7	22.8	5.3	13.2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57.5	37.0	28.8	28.8	5.5	13.7
섬유류	47.1	52.9	24.3	21.4	4.3	10.0
생활용품	47.2	58.3	27.8	22.2	0.0	2.8
철강금속제품	50.0	28.0	30.0	16.0	8.0	16.0
기계류	49.1	41.1	29.4	21.5	4.9	13.5
전자전기제품	46.9	32.7	28.6	18.4	2.0	12.2
전체 평균	50.1	41.2	27.1	22.8	5.3	12.1

-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관세 부담은 MFN 관세율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조사 대상국가 중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던 미국을 예시로 살펴보면, 미국의 MFN 평균 환산관세율¹⁾(2025년 6월 기준)은 2.09%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섬유류(13.61%), 생활용품(4.05%),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3.80%)은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MFN 관세율을 기록함 이들 산업군에서는 수입자가 FTA를 통한 관세 혜택(관세 절감 효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며, 설문에서도 섬유류와 생활용품의 기업들이 [수입자 요청]을 높게 응답한 결과와도 일치함
- 반면, 전자전기제품(0.71%)과 철강금속제품(1.40%)처럼 평균보다 낮은 MFN 관세율을 보인 산업군에서는 [수입자 요청]에 의한 FTA 활용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특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3.8%)은 평균을 상회하는 MFN 관세율을 보이는 동시에, 설문에서 [관세절감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해당 산업군의 기업들이 FTA를 통해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줌

1) 미국의 산업별 가중 평균 환산 관세율이란 각 품목의 수입액(2025년 6월 기준)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산출한 환산 관세율로 실제 교역에서 산업이 부담하는 평균 관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관세율이 2.09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가격 대비 약 2.09% 수준의 관세가 부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8> 미국의 산업별 가중 평균 환산 관세율(MFN)

(단위: %)

구분	농림 수산물	화학 공업 제품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생활 용품	섬유류	철강 금속 제품	기계류	전자 전기 제품	광산물	잡제품	평균
관세율	3.40	1.01	3.80	4.05	13.61	1.40	2.85	0.71	0.19	0.03	2.09

주: USITC 관세율표(HTS 8단위 기준 MFN 관세)와 2025년 1~6월 미국 수입 금액수량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환산 관세율을 재산출함
(종량세 적용 품목의 경우 종가세로 환산 후, 관세가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치임)

자료: USITC

- 아울러 기업들은 서술형 응답을 통해 FTA 활용이 관세 절감 효과에 그치지 않고, 신규 시장을 개척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함
 - 철강금속제품 기업은 FTA 활용으로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신규 거래선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응답함
 - 화학공업제품 기업은 'K-뷰티 성장세에 힘입어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해외 수요처와의 접점이 늘어났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기업은 '미·중 간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중국 발주가 국내 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수출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응답함
 - 이러한 응답은 FTA가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종합적으로 볼 때, FTA 활용은 관세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입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향후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제3절 FTA 활용기업의 애로사항

○ 기업들이 FTA 활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호소한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31.2%)이었고, 이어 원산지결정기준(PSR) 적용의 어려움(23.1%),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복잡성(20.5%), FTA 관련 정보 부족(15.4%), 환율 불안정(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통상 리스크(9.4%), 수출입 시스템 연계 미비·인력 부족(7.4%), 협정문 해석의 모호성(6.4%), 수입국 통관규제 강화(6.1%) 등이 조사됨

<표 39> FTA 활용기업의 산업별 'FTA 활용 애로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 원산지 증빙 자료 부담 : 31.2
● PSR(세부 원산지결정기준) 어려움 : 23.1
● CO 발급 절차 복잡 : 20.5
● FTA 정보 부족 : 15.4
● 환율 불안정 : 14.0
● 통상 리스크(통상 제재·지정학적 리스크) : 9.4
● 수출입 시스템 연계 미비·인력 부족 : 7.4
● 협정문 해석 모호 : 6.4
● 수입국 통관규제 강화 : 6.1
● 품목분류 해석 불일치 : 4.5
● FTA 활용 실익 미미 : 3.6
● 바이어 미요구 : 2.3
● 실질적 변형 기준 충족 : 1.5
● FTA 활용조건 불충족 : 1.2

<표 40>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조사 결과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구분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	FTA 관련 정보·이해도 부족	통상 리스크
전체	31.2	23.1	20.5	15.4	9.4

- 주요 애로사항 문항에 대한 산업별 응답을 보면,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은 철강금속제품(42.0%), 섬유류(35.7%),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3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은 잡제품(33.3%), 생활용품(30.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30.1%)에서 높게 나타남
- [FTA 정보 부족]은 잡제품(66.7%), 화학공업제품(28.9%), 농림수산물(26.1%)에서 비중이 컸으며, [통상 리스크]는 전자전기제품(20.4%), 생활용품(19.4%), 화학공업제품(13.2%)에서 응답이 많음
-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은 생활용품(11.1%), 농림수산물(10.9%), 전자전기제품(10.2%)에서 높게 나타남

<표 41> FTA 활용기업의 산업별 'FTA 활용 애로사항' 주요 조사 결과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구분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	FTA 관련 정보·이해도 부족	통상 리스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
농림수산물	21.7	26.1	26.1	10.9	10.9
화학공업제품	28.1	25.4	28.9	13.2	3.5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35.6	30.1	21.9	4.1	6.8
섬유류	35.7	18.6	21.4	7.1	10.0
생활용품	22.2	30.6	16.7	19.4	11.1
철강금속제품	42.0	22.0	10.0	12.0	8.0
기계류	25.2	27.6	25.8	11.0	7.4
전자전기제품	30.6	18.4	18.4	20.4	10.2
잡제품	0.0	33.3	66.7	0.0	0.0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제품 산업군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철강은 원료-중간재-최종재의 단계적 생산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원재료를 대기업이나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높기에 이 과정에서 원산지 입증자료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관련 증빙자료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확인됨

- 섬유산업 역시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섬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과 심사의 집중 대상으로 분류되어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해외 임가공과 보세가공무역이 활발한 섬유산업 특성상 재수입되는 원재료의 원산지 적정성 점검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함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산업군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과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동시에 호소함
 -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아 자체적으로 원산지 증빙자료를 준비하거나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한-아세안 FTA, RCEP 등 기관발급이 요구되는 협정의 경우 세부 절차가 복잡해 FTA 활용에 애로가 크다고 응답함
- 농림수산업의 경우 [FTA 정보 부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 식품 분야는 수입국별 검역 및 표시기준 등이 수시로 강화되지만 관련 정보가 분산돼 있어 영세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국산 농수산물 검역 부적합 사례는 1,025건에 달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음
 - 즉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과 더불어 관련 최신 규정을 반영한 증빙서류 준비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보여줌
- 서술형 응답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으로 기업들은 투입 원자재의 원산지 확인, 강화된 원산지 검증 요청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함
-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도 확인됨
 - 일부 기업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추가관세 부과 향후 수출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기업들은 “한·중 연결공정 제품²⁾에 대해 특혜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은 충족되지만, 일반원산지 판정 기준이 상이하여 원산지 규정 적용이 혼란스럽다”라고 언급함

2) ‘한·중 연결공정제품’이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공장에서 임가공을 하는 등 제조 가공 공정이 중국과 밀접히 연관된 제품을 말한다. 미국으로 수출시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 판정은 '19 CFR 134'에 따라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 3가지 요소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표 42>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일부 발췌)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 경험이 적다보니 HS CODE 확인부터 원산지 증명서 발급까지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되고 있음, 또한 사내 전담인력도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 산업군)
원산지 증빙 자료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따라 원자재 수입국 정보를 요청받았으나, 납품업체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함(기계) · 미국에서의 FTA 검증 요청이 강화되면서, 원산지 증빙자료 등 검증자료 준비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적 비용이 소요됨(기계, 전자전기제품) · 수출 과정에서 부품 중 일부가 제3국산으로 분류되어 최종 제품이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발생, 이로 인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래처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경험함(생활용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어려움 (품목분류 해석의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에서 제작한 자동차 부품이 국내에서는 제8708.50호(자동차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부분품)에 분류되나 미국에서 제8708.99호(그 밖의 차량 부분품)로 분류되어 FTA 활용 시 애로가 발생함(기계)
통상 리스크 · 정보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정부 이후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향후 FTA 활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우려됨(기계) · 對미 수출품목의 90% 이상이 FTA 활용 대상이나, 자동차부품에 품목별 추가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철강금속제품) ·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대해 특혜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은 충족되나, 일반원산지는 판정 기준이 상이하여 판정에 어려움이 있음(전자전기제품)

- 특히 [통상 리스크]는 전체 수출기업의 평균 응답(9.4%)보다 對미 수출기업에서 더 높은 비중(14.6%)을 보였는데, 다수의 기업이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를 직접적 요인으로 꼽아 최근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3> 전체 수출기업, 미국 수출기업 : 'FTA 애로사항' 주요 조사 결과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구분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원산지결정기 준 적용의 어려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	FTA 정보 (이해도) 부족	통상 리스크
수출기업 전체	31.2	23.1	20.5	15.4	9.4
미국 수출기업	25.7	18.1	13.2	16.7	14.6

- 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은 전체 수출기업 평균 응답률(20.5%)에 비해 對미 수출기업에서는 낮은 수준(13.2%)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의 경우 수출자가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애로사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절차적 복잡성 자체는 여전히 기업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결국 선택형과 서술형 응답을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이 현시점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애로는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와 원산지 규정 관련 대응, 그리고 통상 리스크 상황에 따른 정보 부족으로 요약됨

제4절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 지원

- 기업들은 효율적인 FTA 활용을 위해 수출품목별(산업별) FTA 활용 가이드 제공(29.4%)과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25.3%)을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도 FTA 관련 교육(23.1%), FTA 전문가 컨설팅(11.4%),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7.6%) 등이 뒤를 이음

<표 44>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필요 지원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p)

구분	FTA 활용가이드 제공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FTA 관련 교육	FTA 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수출기업 전체	29.4	25.3	23.1	11.4	7.6

- 산업별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지원 필요성이 고르게 나타났으며, 서술형 응답에서는 주로 對미 수출기업들의 의견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체계 개편 및 통상 규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FTA 활용 가이드 제공]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는데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FTA 특혜 원산지 판정과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의 불일치, 전기차 배터리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계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기업들은 제도적 복잡성 속에서 실무 적용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 마련을 요구함
 -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FTA 전문가 컨설팅]과 [FTA 활용 가이드 제공] 수요가 높았는데 철강은 對미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이자 관세 환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로, 관련 쟁점은 전문지식과 시의성 있는 정보가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 지원과 구체적 활용 지침의 필요성이 높다는 응답이 나온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부 기업은 원산지 증빙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지적하며, 서류 절차의 간소화와 기관 발급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하여 발급 수수료와 행정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이나 절차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FTA 계약상대국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품목별 시의성 있는 FTA 활용 가이드 제공,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기업들이 변동성이 큰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를 반영함

<표 45> FTA 활용기업의 산업별 'FTA 활용 필요 지원' 주요 조사 결과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구분	FTA 활용가이드 제공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FTA 관련 교육	FTA 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농림수산물	21.7	26.1	26.1	10.9	10.9
화학공업제품	28.1	25.4	28.9	13.2	3.5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35.6	30.1	21.9	4.1	6.8
섬유류	35.7	18.6	21.4	7.1	10.0
생활용품	22.2	30.6	16.7	19.4	11.1
철강금속제품	42.0	22.0	10.0	12.0	8.0
기계류	25.2	27.6	25.8	11.0	7.4
전자전기제품	30.6	18.4	18.4	20.4	10.2
잡제품	0.0	33.3	66.7	0.0	0.0
전체 평균	29.4	25.3	23.1	11.4	7.6

제5장 한-중 FTA 활용기업 실태조사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제1절 한-중 FTA 활용기업 실태조사 개요

제2절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효과

제3절 한-중 FTA 활용기업의 애로사항

제4절 한-중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 지원

제5장

한-중 FTA 활용기업 실태조사

제1절 한-중 FTA 활용기업 실태조사 개요

- 앞 장에서 전체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활용 실태를 살펴본 데 이어, 본 장에서는 동일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한-중 FTA 활용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한-중 FTA 활용 실태와 주요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조사 기간: 2025년 6월 16일 ~ 6월 30일
 - 조사모집단: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2024년 수출기업
 - * 제외 사항: 비영리 기업, FTA 비대상품목 수출기업, FTA 미활용기업, FTA 활용 대표 품목의 대상금액 십만원 이하 기업
 - 전체 응답기업 수: 총 605개 수출기업
 - 한-중 FTA 활용기업 수: 120개 수출기업
- 본 분석은 해당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 중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120개 기업의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응답 기업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110개사(9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견기업은 8개사(6.7%), 대기업은 2개사(1.6%)로 나타남
- 이번 조사에 응답한 중국 수출기업 120개사를 산업군별(MTI 1단위 기준)로 분류한 결과 화학공업제품군이 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기계류(22.5%),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0.8%), 섬유류·철강금속제품(8.3%), 전자전기제품(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화학공업제품의 높은 비중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수요 증가와 한국 화학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중국의 제조업 설비 현대화 수요와 맞물려 기계류 산업군 또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보임

<표 46> 산업별 對중국 수출기업 응답 비중 현황

(단위: %, %p)

구분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설문응답 비중	5.0	32.5	10.8	3.3	8.3
'24년 수출기업수 비중	8.5	9.4	13.6	8.5	12.5
구분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잡제품	전체
설문응답 비중	8.3	22.5	7.5	1.7	100
'24년 수출기업수 비중	14.3	23.3	9.6	0.3	100

자료: 관세청, 「기업무역 활동 통계」

제2절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효과

- 수출기업들이 한-중 FTA 활용을 통해 얻는 가장 큰 효과로는 관세 절감(52.5%)을 꼽았으며, 이어 바이어 요구 충족(45.8%),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29.2%), 가격 경쟁력 향상(23.3%), 신규 시장 개척(7.5%) 순으로 조사됨
- 주목할 점은 [바이어 요구 충족]이 전체 수출기업 평균(41.2%)보다 對중 수출기업(45.8%)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 수입업체들이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여 FTA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7> 전체 수출기업과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효과' 조사 결과

Q. FTA 활용을 통해 체감한 주요 효과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p)

구분	관세 절감	수입자 요청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	가격 경쟁력 향상	신규 시장 개척	효과 미비
중국 수출기업	52.5	45.8	29.2	23.3	7.5	12.5
수출기업 전체	50.1	41.2	27.1	22.8	5.3	12.1
비중 차이	2.4	4.6	2.1	0.5	2.2	0.4

- 산업별로 살펴보면, 생활용품(100.0%), 기계류(63.0%), 섬유류(60.0%)는 [관세 절감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철강금속제품(70.0%)은 [신규 시장 개척의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농림수산물(100.0%)은 [가격 경쟁력 향상]을 주요 효과로 응답함
- 이러한 산업별 차이는 각 산업의 특성과 중국 시장 내 경쟁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섬유류는 중국 내 가격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FTA를 통한 관세 절감이 직접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철강금속제품은 FTA를 활용하여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중국 내륙 시장으로 진출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한-중 FTA 활용은 관세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규 시장 진출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48> 한-중 FTA 활용기업의 산업별 'FTA 활용 효과' 조사 결과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구분	관세 절감	수입자 요청	수입국 통관 간소화/우대	가격 경쟁력 향상	신규 시장 개척	효과 미비
농림수산물	33.3	33.3	33.3	100.0	50.0	0.0
화학공업제품	53.8	20.5	7.7	35.9	15.4	15.4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53.8	15.4	0.0	23.1	15.4	30.8

섬유류	60.0	40.0	10.0	50.0	20.0	0.0
생활용품	100.0	25.0	0.0	50.0	25.0	0.0
철강금속제품	20.0	10.0	10.0	50.0	70.0	10.0
기계류	63.0	33.3	3.7	55.6	37.0	11.1
전자전기제품	33.3	0.0	0.0	44.4	33.3	11.1
잡제품	50.0	50.0	50.0	50.0	50.0	0.0
중국 평균	52.5	23.3	7.5	45.8	29.2	12.5

제3절 한-중 FTA 활용기업의 애로사항

- 한-중 FTA 활용 수출기업들이 FTA 활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호소한 애로사항은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40.8%)이었으며, 이어 원산지결정기준(PSR) 적용의 어려움(28.3%),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복잡성(21.7%), 환율 불안정(12.5%), FTA 관련 정보 및 이해 부족(11.7%), 통상 리스크(10.0%) 순으로 나타남

<표 49> 한-중 FTA 활용기업의 산업별 'FTA 활용 애로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 원산지 증빙 자료 부담 : 40.8
- PSR(세부 원산지결정기준) 어려움 : 28.3
- CO 발급 절차 복잡 : 21.7
- 환율 불안정 : 12.5
- FTA 정보 부족 : 11.7
- 통상 리스크(통상 제재·지정학적 리스크) : 10.0
- 수입국 통관규제 강화 : 9.2
- 협정문 해석 모호 : 8.3
- 수출입 시스템 연계 미비·인력 부족 : 6.7
- FTA 활용 실익 미미 : 5.0
- 실질적 변형 기준 충족 : 3.3
- FTA 활용조건 불충족 : 2.5
- 바이어 미요구 : 1.7

- 특히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은 전체 수출기업 평균(31.2%)보다 對중 수출기업(40.8%)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세관당국의 엄격한 원산지 검증 요구와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이 우리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50> 전체 수출기업과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조사 결과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p)

구분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	FTA 관련 정보·이해도 부족	통상 리스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
중국 수출기업	40.8	28.3	11.7	10.0	21.7
수출기업 전체	31.2	23.1	15.4	9.4	20.5
비중 차이	9.6	5.2	-3.7	0.6	1.2

- 산업별로 살펴보면 섬유류(70.0%)는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선택함
 - 섬유의 경우 그 품목 종류가 방대하고 품목별로 생산 방법과 생산국이 상이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한-중 FTA의 상대적으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과 세분화된 품목분류가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됨
- 기계류(55.6%)와 전자전기제품(55.6%)은 다수의 부품을 조립하는 산업 특성상 각 부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반영돼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다른 산업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FTA 활용 애로사항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본과 지식,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특성상 상대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다만 원산지 인증 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유자인 고객사 측에서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샘플 발송을 원하지 않는 등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과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두 항목에 대한 어려움은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표 51> 한-중 FTA 활용기업의 산업별 'FTA 활용 애로사항' 주요 조사 결과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구분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의 어려움	FTA 관련 정보·이해도 부족	통상 리스크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
농림수산물	50.0	0.0	0.0	0.0	16.7
화학공업제품	25.6	28.2	5.1	12.8	17.9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46.2	30.8	7.7	0.0	15.4
섬유류	50.0	70.0	20.0	0.0	30.0
생활용품	25.0	25.0	25.0	0.0	0.0
철강금속제품	40.0	30.0	0.0	20.0	50.0
기계류	55.6	25.9	18.5	7.4	25.9
전자전기제품	55.6	11.1	11.1	11.1	11.1
잡제품	0.0	0.0	100.0	100.0	0.0
중국 평균	40.8	28.3	11.7	10.0	21.7

- 수출기업들의 응답을 통하여 “중국의 수입업체는 FTA 활용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는 것과 “한-중 FTA로 인하여 관세 절감 효과”를 느끼는 기업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협력사로부터의 자료 조달과 복잡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절차 등으로 인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사의 요청 없이는 적극적으로 FTA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 답변한 기업도 있음

<표 52>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일부 발췌)

<p>원산지 증빙 자료 부담 ·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로부터 자료 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음(전기전자제품) · 증빙 자료 작성의 절차가 번거롭고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아 발급이 어려움(섬유류,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도 불확실한데 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도 어려워 활용을 포기함(플라스틱·고무)
<p>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를 위하여 역외산 원재료 수입을 늘리다 보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워져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섬유류)
<p>정보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품목에 대하여 수입업체마다 다른 HS코드로 필요 서류를 요청하나 담당자들의 FTA 활용 지식이 부족하여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기계류) · 수출품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요구 서류 등 FTA 활용을 위한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해 FTA를 활용할 수 없음(화학공업제품) · 바이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FTA를 활용하며, FTA 활용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FTA를 적극 활용하지는 못함(기계류)

- 결국 선택형과 서술형 응답을 종합할 때, 우리 기업이 현시점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애로는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어려움으로 파악됨

제4절 한-중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 한-중 FTA 활용기업들은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하기 위해 수출품목별(산업별) FTA 활용 가이드 제공(32.5%)을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응답함. 이어 FTA 관련 교육(26.7%),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23.3%),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8.3%), FTA 전문가 컨설팅(5.8%) 순으로 조사됨
- [FTA 활용 가이드 제공]은 전체 수출기업 평균(29.4%)보다 對중 수출기업(32.5%)에서 더 높은 수요를 보임
 - 이는 FTA 활용 애로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세관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53> 전체 수출기업과 한-중 FTA 활용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필요 지원사항' 조사 결과

Q.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p)

구분	FTA 활용가이드 제공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FTA 관련 교육	FTA 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중국 수출기업	32.5	23.3	26.7	5.8	8.3
수출기업 전체	29.4	25.3	23.1	11.4	7.6
비중 차이	3.1	-2.0	3.6	-5.6	0.7

-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물(50.0%)은 [FTA 활용 가이드 제공]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의 검역 및 위생 기준이 수시로 변경되고, 품목별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는 데 따른 정보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생활용품(75.0%)의 경우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고, 각 제품별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한 특성상 체계적인 시스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자전기제품(33.3%)과 화학공업제품(28.2%)은 [FTA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들 산업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신제품 개발이 활발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FTA 활용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4> 한-중 FTA 활용기업의 산업별 'FTA 활용 필요 지원' 주요 조사 결과

(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구분	FTA 활용가이드 제공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FTA 관련 교육	FTA 전문가 컨설팅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농림수산물	50.0	0.0	16.7	16.7	16.7
화학공업제품	35.9	25.6	28.2	5.1	2.6
플라스틱·고무· 가죽제품	23.1	30.8	30.8	0.0	7.7
섬유류	40.0	30.0	30.0	0.0	0.0
생활용품	0.0	75.0	25.0	0.0	0.0
철강금속제품	40.0	20.0	20.0	0.0	20.0
기계류	25.9	11.1	22.2	14.8	18.5
전자전기제품	44.4	22.2	33.3	0.0	0.0
잡제품	0.0	50.0	50.0	0.0	0.0
중국 평균	32.5	23.3	26.7	5.8	8.3

제6장 결론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한-중 FTA 10년의 종합 평가

제6장

결론

- (교역구조) 한-중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은 규모 확대와 구조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 수출 측면에서 발효 이후 대중 수출의 절대 규모는 증가했으나, 대세계 수출 증가 속도를 하회하면서 중국 비중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고, 그 결과 중국은 여전히 ‘최대 단일 시장’ 지위를 유지하되 우리 수출시장은 점진적 다변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 측면에서는 화학·플라스틱·기계·전자전기 등 중간재·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대중 수입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중국이 한국 제조업의 최대 수입·조달처이자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고착화되는 한편, 단일국 의존 심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됨
- (FTA의 역할) 한-중 FTA는 이러한 교역 구조 변화 속에서 ‘관세 인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됨
 - 발효 이후 對중 수출 FTA 활용률은 2016년 33.9%에서 2024년 83.1%로, 수입 활용률은 58.1%에서 92.0%로 상승하며 협정상 특혜를 실제 교역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구조가 정착됨
 - 화학공업제품·전자전기제품·기계류 등 기술·품질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서는 수출·수입 모두 활용률이 80~90%대에 이르러, 한-중 가치사슬 핵심 구간에서 FTA가 비용 절감과 거래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섬유·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등 일부 산업에서는 관세 인하 잠재 효과에 비해 활용률 상승이 더디거나 기업 규모에 따른 활용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구조적 제약도 병존함
- (산업·품목별 성과) 고효용·저효용 품목 분석 결과, FTA의 효과는 ‘관세 인하 여부’ 자체보다 ‘어떤 품목을 누가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효용 품목은 ① MFN 대비 뚜렷한 관세 인하가 가능하고, ② 중국 내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거나 유지되는 산업재·중간재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 품목에서는 관세 절감이 대중 수출 증가 또는 수출 감소폭 축소로 실제 연결되는 사례가 확인됨
- 저효용 품목 상당수는 ① 관세 인하 여지는 존재하지만, ②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기술 자립·현지 조달 확대 등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 지위가 약화된 경우로, 이들 품목에서는 FTA 저효용으로 수출 감소가 심화된 측면과, 설령 활용을 확대해도 시장 구조 요인 때문에 성과가 제한될 수 있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
- 따라서 한-중 FTA는 “FTA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일반 수단”이기보다, 성장성이 있거나 방어가 필요한 전략 품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선택적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기업 규모별 구조) 기업 규모별 분석 결과, FTA 활용의 양적·질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첫째, 대중 FTA 활용 수출기업 수는 최근 6년간 약 1만 3천 개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구성은 중소기업 중심 구조가 지속됨. 이는 신규 활용 기업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기존 활용 기업의 지속 이용 경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함
- 둘째, 대기업·중견기업은 다수 산업에서 평균 이상의 활용률을 기록하는 ‘고→고’ 유형이 우세하나, 일부 품목에서는 활용률이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대중 수출도 부진한 ‘구조적 저활용’ 사례가 확인되며, 해당 품목에서는 시장 전략과 FTA 활용 전략의 재정렬이 요구됨

- 셋째, 중소기업은 전반적인 활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다수 산업이 여전히 평균 이하에 머무는 ‘저→저’ 구조가 지속됨. 일부 화학·전자전기 품목에서 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기반으로 대중 수출을 크게 확대한 성공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산업 전반의 질적 도약으로 확산되지 못한 한계가 뚜렷함
- (기업 실태조사) 전(全) FTA 활용기업과 한-중 FTA 활용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종합하면, 체감 효과·애로·지원 수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효과 측면에서는 관세 절감, 바이어 요구 충족, 수입국 통관 우대, 가격 경쟁력 향상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효과로 지목되며, 특히 대중 수출기업에서 ‘바이어의 한-중 FTA 특혜 요구’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중국 시장에서 FTA가 거래 관행의 일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 애로 측면에서는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부담, 원산지결정기준(PSR) 적용의 어려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복잡성이 공통 상위 요인으로, 섬유·플라스틱·가죽·철강 등 다단계 가치사슬을 가진 산업과 한-중 FTA 활용기업에서 그 부담이 특히 크게 인식되고 있음
 - 지원 수요 측면에서는 품목·산업별 FTA 활용 가이드,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FTA 교육·전문가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대중 수출기업은 중국 세관의 엄격한 검증과 수시로 변화하는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 수요가 두드러짐
- (종합 평가) 이상을 종합하면, 한-중 FTA 발효 10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교역 측면에서는 대중 수출 비중의 완만한 조정과 對중 수입 의존도 심화를 동반한 ‘교역 구조 재편의 10년’이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 확대와 중국의 자체 조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된 시기로 평가됨

- FTA 활용 측면에서는 산업·기업 규모별 편차에도 불구하고 수출·수입 모두 80~90%대 활용률이 정착된 ‘제도 정착의 10년’이었으며, FTA가 관세 인하를 넘어 규범 기반의 교역 안정성과 산업 연계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동시에 중국의 산업 고도화·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EU 등 주요국의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해 대중 수출의 구조적 성장 여지는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있으며, FTA만으로 이러한 제약을 상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